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 한창

군, 경락품새 교육·체험·관광 행사 진행… 태권도 성지 무주군 위상 강화 기대

무주군에서는 지금 '2025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가 한창이다.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는 태권도의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여 어린이, 초보자, 가족 단위의 태권도인들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개최 중인 것으로, (사)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무주군과 전북시니어태권도협회, 한국브레인트래킹도연구소와 태강원이 후원한다.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는 교육과 행사로 진행되며 먼저, 무주군민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9월 4일까지 무주국민체육센터 별관과 태권도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실시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금요일은 태권도원 도약센터에서 최재균(경락품새시범단장) 사범과 이도우 지도자, 유영석 지도자가 1시간씩 경락 품새를 지도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중인 9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무주국민체육센터와 무반딧불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태권도 체험 및 관광 행사가 개최될 예정



무주군에서는 지금 '2025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가 한창이다.

이다. 1일 차에는 무주를 국민체육센터에서 전시회 관람과 종이접기 퍼포먼스, 문화체험이 진행된다. 2~3일 차에는 경락·브레인폼새, 버추얼태권도, 스파링시스템 체험, 여성호신술 세미나 및 체험이 한국브레인트래킹도연구소 김철형 소장 주관하에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열린다. 박규금 무주군청 태권문화과장은

“태권도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재미있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를 통해 무주의 자랑 반딧불축제가 빛나고 반딧불축제제를 통해 무주태린이 문화페스타가 빛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무주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준비 박차

군, 성공 개최 위해 실행계획 보고회 가져

장수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군청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축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올해 축제는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슬로건으로 '한우'와 '사과'를 중심으로 한 장수군의 대표 브랜드에 오미자·토마토 등 레드푸드를 활용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레드푸드존'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올해는 전문 셰프와 함께하는 레드푸드 요리 체험, 사할음식 만들기 체험 등 새로운 길러 콘텐츠를 선보여 한우와 사과를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레드푸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축제 운영 측면에서도 안전을 고려해 메인무대를 종합운동장으로 옮겼고 신축된 실내체육관과 의암소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쉼터 등을 조성해 무더위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고려해 구성해 오감만족형 축제로 거듭나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현행축제 진입과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국내·외 유일의 레드푸드 축제”라며 “레드푸드 도시로서 장수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방역 신속 대응

진안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성수면 일대에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지난 20일 오전 즉시 피해현장에 출동하여 침수된 11가구 및 마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

방수칙 안내와 함께 주민들에게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 내 이재민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임시주거가 종료되는 날까지 감염병 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방



역차량을 활용한 지역 내 방역소독을 지속 병행하여 2차 감염병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로컬푸드 진안점 지속 성장

개장 10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억원 달성

진안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안로컬푸드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진안점이 개장 10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진안점은 문을 연 직후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과 입소문 속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개장 19일 만에 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5년 7월 기준으로 누적 매출 2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직매장에는 진안군 관내 3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990여 종의 농산물을 직접 납품하고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청정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고품질 축산물과 지역농산물

이 진안점의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군은 로컬푸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품질 관리와 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직매장 매출 성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 과장은 “진안점의 성장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농가의 정성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로컬푸드직매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계남면 교육발전협의회’ 본격 출범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센터장이정영)는 계남면사무소에서 ‘계남면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인구감소와 학생 수 급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계남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이우기 계남면 교육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13명의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복합탐방문화 행사 운영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탐방객과 야영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지역상생 복합 탐방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중 주말에는 하늘 탐방로 입구에서 '일일 카페'를 연다. 무주 지역 7개 커피 전문점과 협업하여, 야영객 선착순 50명에게 탐방로에 담은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생식물인 '기린초'를

활용한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부스도 운영하여 생태보전의 메시지를 몸으로 실천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무주의 생활문화동호회와 연계한 기획 전시 및 주말 버스킹 공연도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축이다. 탐방안내소 주변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제작한 아크릴화, 캘리그래피, 퀼트, 리판 공예 등 생활예술 전시가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지며, 오키나와, 국악, 통기타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이 덕유산의 자연과 어우러져 탐방객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덕유산국립공원 내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여름 성수기가 도래하여 탐방객증가로 불법·무질서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수기 공원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현장 순찰팀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21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취사·야영행위와 오물투기 등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시 적발될 경우 행위의 사람과 유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대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 추진

(재)진안사랑장학재단이 진안군 출신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 대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인재들이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 출신 대학생 중 2024년 9월 1일 이후 종료된 대학교 주관 해외 어학연수 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 현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한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안군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최종 선발자는 대학교 주관 어학 및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선발은 학부 성적과 공인 어학성적을 합산해 평가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안군청 가족행복과 교육지원팀에 직접 방문해서만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